

[제2018-83호]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	
배포일시	2018. 10.2(화)	담당부서	LA한국문화원 공연		
연락처	323-936-3015/tammy@kccla.org	담당자	Tammy Chung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데이빗 베누아의
<영혼을 울리는 아름다운 선율>



- ▶ 공연명 :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데이빗 베누아의
 ‘영혼을 울리는 아름다운 선율’
- ▶ 일 시 : 2018.10.17(수) 19:30
- ▶ 장 소 : Colburn School, Herbert Zipper Concert Hall,
 200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2
- ▶ 주최 : 해외문화홍보원
- ▶ 주관 : LA한국문화원,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
- ▶ 무료티켓 배포 문의 : LA한국문화원 323-936-3015 공연담당 Tammy Chung
- ▶ 첨부자료 : 공연 포스터 및 사진자료 등 각 1부

'빛보다 밝은 감동의 연주', '영혼을 울리는 아름다운 선율'

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은 하트체임버시각장애인오케스트라(단장 이상재)와 함께 특별공연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데이빗 베누아의 '영혼을 울리는 아름다운 선율'> 콘서트를 10월 17일(수) 오후 7시 30분 콜번스쿨 지퍼홀에서 개최한다.

빛보다 밝은 감동의 연주, 영혼을 울리는 아름다운 선율로 관객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연은, 해외문화홍보원이 주최하고 LA한국문화원과 하트체임버시각장애인오케스트라가 공동 주관하였으며, 오케스트라 단원의 연주 외에 미국 재즈 피아니스트계의 살아 있는 역사로 불리우는 피아니스트 데이빗 베누아가 특별 게스트로 참여하며 더욱 풍성한 공연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각장애인 체임버 오케스트라 「하트 체임버 오케스트라」

"우리 연주가 힘든 세상에 희망 되길"

시각장애 음악인으로 구성된 관현악단인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이하 하트체임버)가 미국 최대의 한인 사회인 로스앤젤레스에서 선보이게 될 이번 공연에서는, 에드워드 엘가의 'Salut d'Amour'(사랑의 인사)를 시작으로 헨리 만치니의 'Moon River', 해롤드 알렌의 'Over the Rainbow' 등 대중들에게 익숙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약 1시간 30분 가량 콜번스쿨 지퍼홀에서 공연된다.

2007년에 창단하여 11주년을 맞이하는 하트체임버는 단원 21명 중 13명이 중증 시각장애인(11명은 1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휘자도 악보도 없이 음악감독인 이상재(나사렛대 교수)의 신호로 연주가 시작된다. 앞이 보이지 않는 단원들은 한 곡을 외우기 위하여 수십 번 연습을 진행하며, 지금은 외운 곡이 약 150곡에 이를 만큼 막대한 연습량을 자랑하며 뛰어난 실력을 겸비한 하트체임버는, 미국 미시간 음악제, 뉴욕 카네기홀, 런던 국제음악페스티벌에 초청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공연을 위해 LA를 방문하는 이상재 하트체임버 단장은 "로스앤젤레스에서의 공연은 처음인 만큼, 우리 교민분들과 현지 관객들에게 저희의 음악을 들려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벅찬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하트체임버의 장기적인 목표는 프로페셔널한 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해서 시각장애인들도

음악가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돕는 일이며, 저희의 음악을 통해 지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희망과 감동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연주는 세계적인 재즈 피아니스트인 데이빗 베누아도 함께 협연을 준비하여 다양한 레퍼토리가 준비되어 있는 만큼, 즐겁게 공연을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공연에 특별 게스트로 참석하게 된 데이빗 베누아는 "빌보드 차트 8주 연속 1위", "그래미상 5회 노미네이트"된 피아니스트계의 거장이다. 25장의 솔로 앨범을 발표한 미국의 컨템포러리 재즈 피아니스트이며, 작곡가이자 제작자, 그리고 프로듀서이다. 2001년부터는 젊은 음악가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열어주고자, 아시아-아메리카 청소년 교향악단(Asia-America youth Symphony)의 음악감독이자, 총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김낙중 문화원장은 “어둠속에서도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줄 이번 공연은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 오케스트라의 대표 레퍼토리와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많은 관객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큰 감동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공연을 통하여 음악으로 다 함께 서로 소통하고 모두 공감하며,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진한 감동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당부했다.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로 발돋움 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관현악단 하트체임버와, 세계 정상자리에 올라 있는 데이빗 베누아의 공연은 한국 사회와 미주류사회에 감동과 희망을 선사할 공연이 될 것이다.

****무료티켓 배포 안내**

공연관람은 무료이나 티켓이 필요하며 LA한국문화원을 통해 무료티켓을 배포한다.

[프로그램]

1. Edward Elgar : Salut d'Amour
엘가 : 사랑의 인사
2. Anton Rubinstein : Melodie in F Op.3 No.1
루빈스타인 : F조의 멜로디
3. Carlos Gardel : Por una Caveza
가르델 : 여인의 향기
4. Dmitrii Shostakovich : Jazz Suite No.2 waltz
쇼스타코비치 : 재즈 모음곡 중 왈츠
5. Henry Mancini : 'Moon River' from <Breakfast at Tiffany's>
맨시니 :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 중 '문리버'
6. Henry Mancini : 'Loss of Love' from <Sunflower>
맨시니 : 영화 <해바라기> 중 '잃어버린 사랑'
7. Harold Arlen : 'Over The Rainbow' from <The Wizard of Oz>
알렌 : 영화 <오즈의 마법사> 중 '무지개 넘어'
8. Max Steiner : 'Tara's theme' from <Gone with the wind>
스테이너 :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중 '타라의 테마'
9. Francis Lai : Main Theme from <Love Story>
레이 : <러브스토리> 주제곡
10. Leigh Harline & Ned Washington : The Letter from Your Childhood
해린 & 워싱턴 : 디즈니 모음곡
11. 흥남파, 정세문, 이흥렬 : 그리운 날들
12. Rolf Lovland and Brendan Graham : You Raise Me Up
러브랜드 & 그레이함 : 유 레이즈 미 업
13. Korean Folk Song : Arirang! Arirang!
한국 민요 : 아리랑! 아리랑!

*프로그램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연주를 할 수 있는 세계에 단 하나뿐인 오케스트라, 150곡에 달하는 작품을 모두 암기하여 연주하는 특별한 연주단체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는 시각장애 음악인으로 구성된 세계 유일의 민간 실내관현악단으로 2007년 3월 창단되었다. 피바디 음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나사렛대학교 관현악과 교수로 재직중인 클라리네티스트 이상재 음악감독이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으며, 바이올리니스트 이보라 악장을 비롯한 13명의 시각장애인 단원과 8명의 비장애인 단원이 함께 활동하며 국내외 순회공연 및 초청공연을 진행하며 감동적인 연주를 선보이고 있다. '기적의 음악', '환상의 하모니를 자랑하는 오케스트라'로 극찬을 받고 있으며, 활발한 연주활동을 통해 꿈을 잃은 이들에게 희망을 줌으로써 장애인식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데이빗 베누아

데이빗 베누아(본명, David Bryan Benoit)는 "빌보드 차트 8주 연속 1위", "그래미상 5회 노미네이트"된 피아니스트계의 거장이다. 25장의 솔로 앨범을 발표한 미국의 컨템포러리 재즈 피아니스트이며, 작곡가이자 제작자, 그리고 프로듀서이다. 2001년부터는 젊은 음악가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열어주고자, 아시아-아메리카 청소년 교향악단(Asia-America youth Symphony)의 음악감독이자, 총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해인문화후보원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하트 시각장애인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데이빗 베누아의
영혼을 울리는 아름다운 선율

Chamber Orchestra of Visually Impaired Musicians
and Pianist David Benoit

Heart of Vision Chamber Orchestra

Wednesday, October 17, 2018 at 7:30 pm
Colburn School, Herbert Zipper Concert Hall
200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2

With Special Guest
David Benoit



Presented by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and Heart of Vision Chamber Orchestra

For more info : www.kccla.org | Ticket : tammy@kccla.org | 323-936-7141, 323-936-3015